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지니텍스(303030)

반도체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병찬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니틱스(303030)

스마트워치 터치 IC 시장점유율 전 세계 1위 기업

기업정보(2022/04/04 기준)

대표자	호경근
설립일자	2000년 05월 02일
상장일자	2018년 08월 30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주요제품	터치 컨트롤러 IC, AF Driver IC, Haptic IC 등

시세정보(2022/04/04 기준)

현재가	2,790원
액면가	100원
시가총액	997억 원
발행주식수	35,745,668주
52주 최고가	4,650원
52주 최저가	2,230원
외국인지분율	0.69%
주요주주	
서울전자통신	16.80%
김원우 외 1인	14.12%
박정원 외 6인	1.67%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9	549.5	18.0	54.3	9.9	4.5	0.8	2.0	1.3	49.5	14	845	207.1	3.3
2020	403.9	-26.5	15.6	3.9	-2.6	-0.6	-0.9	-0.6	37.9	-7	849	N/A	2.9
2021	388.3	-3.9	16.1	4.1	-1.1	-0.3	-0.4	-0.3	44.2	-3	842	N/A	3.8

■ 스마트 기기의 시스템 반도체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팹리스 기업

지니틱스(이하 동사)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카메라, 핀테크 장치 등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판매하는 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주력제품은 터치스크린을 구동, 제어하는 터치 컨트롤러 IC(이하 터치 IC)이다. 동사는 현재 삼성전자, 화웨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스마트워치 부문에서 터치 IC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 모듈에 필요한 AF(Auto Focus) Driver IC, Haptic IC,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IC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외형 축소 후 2021년 매출실적 유지

동사는 2019년 전년 대비 18.0%의 매출액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전 세계적인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웨어러블 등) 판매 감소로 전년 대비 26.5% 감소한 403.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스마트기기 시장이 정체기를 보였으나, 미국시장 진출 등 일부 실적을 만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388.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 전방산업 회복 및 글로벌 시장 확대로 향후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 기대

동사는 현재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글로벌 제조사뿐만 아니라 오포(OPPO), 비보(VIVO)를 계열사로 둔 BBK, 샤오미 등 중국 IT 제조사들까지 동사의 제품을 공급 중이다. 아울러,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탑5 제품 중 3개 제품에 동사 IC가 들어갈 정도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구글 자회사인 핏빗(Fitbit)에 터치 IC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업체로서 시장 확대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구글과 메타의 첫 스마트워치가 2022년 상반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사의 향후 매출실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경쟁력

터치 IC 반도체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삼성, 화웨이, 비보, 오포 등 글로벌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터치 IC 공급
- 2021년 구글 자회사 핏빗에 터치 IC 공급 시작

시스템 반도체 설계의 차별화된 기술력 보유

-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스크린을 제어하는 터치 IC 제조 기술 보유
- 스마트폰 카메라의 선명한 화질을 위한 AF Driver IC 설계 기술 보유

핵심기술 및 주요제품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동사 제품

-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화면 터치 동작을 제어하는 터치 IC가 가장 대표적 제품
- 이외에도 AF Driver IC, Haptic IC 등이 있음.

종류	제품 설명	적용모델
Touch IC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터치 스크린 동작 제어 IC 	
Touch IC (웨어러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터치 스크린 동작 제어 IC 	
AF Driver IC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메라 이미지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의 자동 포커스 드라이버 IC 등 	

시장경쟁력

IT기기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세 전망

-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의하면 2022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1년보다 7.2% 증가한 14억 9,200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
- 리처시앤마켓에 의하면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은 2025년 990억 달러(한화 약 116조 9,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트랜드포스에 의하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출하량은 2022년 약 49억 2,10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

항목	년도	규모	성장률
스마트폰	2021	13.8억 대	7.2%▲
	2022	14.9억 대	
스마트워치	2021	590.2억 달러	13.8%▲
	2025	990억 달러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2021	48.2억 대	2.1%▲
	2022	49.2억 대	

[전 세계 스마트기기 시장전망 추이]
(출처: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등, NICE디앤비 재구성)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여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음.
- 동사는 환경방침을 세우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환경방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다양한 복리후생을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승진, 특별승진 및 우수사원 포상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노고 및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 동사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1.1%로 대부분 임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근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동사는 배당금 지급제도 및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등의 주주친화활동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 현황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화면 터치 동작을 제어하는 터치 IC를 주력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워치 터치 IC 시장점유율 1위로 알려진 동사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서 시장 확대를 진행 중이다.

■ 기업 개요

동사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카메라, 핀테크 장치 등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판매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2000년 5월 설립되어 2018년 8월 코스닥 상장하였다. 동사는 최초 (주)세인정보통신이란 사명으로 설립되었으나, 2010년 11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고, 설립 이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친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등의 인증실적과 IR52 장영실상,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3,000만불 수출의 탑 등 다수의 수상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스마트워치 부문에서 터치 IC 시장점유율 1위로 알려진 동사는 일반적인 팹리스 기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2014년 3월 위더스비전과 흡수합병을 통해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글로벌 제조사뿐만 아니라 오포, 비보를 계열사로 둔 BBK, 샤오미 등 중국 IT 제조사들까지 동사의 제품을 공급 중이다. 아울러,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탑5 제품 중 3개 제품에 동사 IC가 들어갈 정도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동사는 2021년, 구글 자회사인 핏빗(Fitbit)에 터치 IC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업체로서 시장 확대를 진행 중이다.

[그림 1] 동사 제품 적용대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 주주

동사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는 최대주주인 서울전자통신(주)과 주요 주주 8인이 전체 주식의 32.58%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전자통신(주)은 동사의 최대주주로서 16.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김원우, 김수아가 각각 12.10%, 2.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정권 외 6인이 각각 1% 미만의 동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서울전자통신(주)	최대주주 본인	6,005,046	16.80
김원우	특수관계인	4,323,945	12.10
김수아	특수관계인	720,655	2.02
박정권	-	250,000	0.70
강희식	등기임원	10,000	0.03
김태영	미등기임원	62,755	0.18
소병철	미등기임원	130,000	0.36
초대열	미등기임원	106,072	0.30
김남수	미등기임원	36,699	0.10
합계	-	11,645,172	32.58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제품 및 매출 구성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인만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정용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 후 일괄 외주 생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제품으로는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에 탑재되어 화면 터치 동작을 제어하는 터치 IC가 가장 대표적이며, 카메라에서 피사체의 거리를 판별하고 렌즈를 자동으로 구동하여 이미지 초점을 맞추는 AF Driver IC, 삼성페이와 같이 휴대폰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하는 Fintech MST IC, 진동이나 힘, 충격 등의 자극을 통해 촉각과 운동을 느끼게 하는 Haptic IC, DC 전압을 동일한 형태의 DC 전압으로 승압 또는 감압 변환하는 DC-DC IC가 있다.

[표 2] 동사 주요제품 소개

주요제품	제품 설명
ZT7548 ZT75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터치 스크린 동작을 제어하는 IC
Touch IC (스마트폰)	 <p>적용모델 참고사진</p>

주요제품	제품 설명	
Touch IC (웨어러블)	ZTW622 ZTW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터치 스크린 동작을 제어하는 IC
	 <p style="text-align: center;">적용모델 참고사진</p>	
Auto Focus Driver IC	ZC533 ZC5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메라에서 피사체의 거리를 판별하고 렌즈를 자동으로 구동하여 이미지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의 자동 포커스 드라이버 IC
	 <p style="text-align: center;">적용모델 참고사진</p>	
Fintech MST IC	ZF115N ZF100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그네틱 정보를 내장한 스마트폰에 카드 단말기를 갖다 대면 카드를 긁은 것처럼 카드 정보가 단말기에 전달되어 무선결제에 이루어지는 무선 모바일 결제 시스템용 IC
Haptic IC	MDH1S ZH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가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느끼는 촉감을 응용하여 진동이나 힘 충격 등의 자극을 통해 촉각과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드라이버 IC
DC-DC IC	ZP331 ZP311 ZP3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블릿,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사용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Driver IC 각각에 적합한 동작 전압을 생성하여 공급하며, 직류전압을 직류전압으로 승압 또는 감압 변환하는 전원 IC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동사의 매출은 크게 터치 IC 매출과 터치 IC 이외 매출로 구분할 수 있다. 터치 IC는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는 주력제품으로 2019년에는 동사 매출의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 85.6%를 기록한데 이어, 2021년에는 71.2%까지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DC-DC(Power) IC, 솔루션 등으로 구성된 터치 IC 이외의 매출은 2019년 9.2%를 차지하였지만, 2020년에는 14.4%를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28.8%까지 높아졌다. 즉, 동사 매출은 여전히 터치 IC의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나, 점진적으로 터치 IC 이외 IC들의 매출도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2] 동사 최근 3개년 주요제품 매출 구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판매전략

동사는 스마트폰 및 휴대용 기기에 적용되는 동사의 IC 판매를 위해 제품 개발 및 고객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제품 분야별로 글로벌 리딩 업체들에 대한 영업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객 밀착관리와 기술지원 확대를 기본으로 하되, 전방 산업의 기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한 기술선도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중화권 시장 진출 및 가전제품, IoT 분야 적용 가능 제품을 위한 개발도 진행 중이다. 각 제품군별 판매전략은 [표 3]과 같다.

[표 3] 동사 주요제품별 판매전략

주요제품	판매전략
터치 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치 IC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진행 방향에 맞는 사양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제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므로 동사 영업 전략에 부합하는 완성품 제조사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동사는 국내, 외 다수의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장점을 통해 향후 필요한 제품에 대한 기획을 보다 빠르게 진행함.
AF Driver 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사는 스마트폰 카메라용으로 저가형 제품부터 고가형 제품까지 full 라인업을 갖춰 고객사 대응 준비를 완료함. OLAF의 경우 중저가 모바일 셋에 적용 중이며 메모리 내장형과 단독형 두 가지 제품군을 개발 완료 및 양산 공급 중이고, 국내 시장에는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으로 고객 대응을 하고 있음.
MST 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MST IC: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출시 모델과 일부 해외 판매 모델에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
Haptic 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ptic IC: 현재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 VR, Tablet 등의 제품에 대부분 동사 제품이 적용 중이어서, 향후 Haptic 기능을 적용할 제품 수요 추가가 예상되므로 Haptic 관련 모터 생산 업체 등과 협업 및 시장 다변화에 준비 중
DC-DC 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DC-DC IC: OLED PMIC 제품으로 스마트워치 및 웨어러블 제품에 적용하여 양산 중임. DC-DC IC는 OLED 생산업체에 적용하여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로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외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을 위한 디스플레이 업체와도 협업이 진행 중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자원 절약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여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또한, 동사는 환경방침을 세우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환경방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국내외 환경법규(RoHS, REACH 등)를 준수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 설계, 개발, 생산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공급망 내에서 사용되는 부품과 완제품에 대해 관리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고 관리하여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착취하여 채굴된 분쟁광물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회사의 성과를 직원과 공유하는 직원 복리를 실현하고자 직원 편의시설인 휴게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경조금 지급, 건강검진비 지원, 산전후 출산휴가, 부서별 조직 활성화비 지원, 사내 외국어 강좌운영, 휴양시설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등을 다양한 복리후생을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승진, 특별승진 및 우수사원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사업의 이익과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청년계층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고, 동사 사업보고서(2021.12)에 따르면, 2020년 약 3백만 원, 2021년 약 2백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동사는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를 제품 개발, 생산 및 양산에 적극 반영하고, 품질개선을 통한 고객 공정 불량률 50PPM 이하의 제품 불량률을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취득한 바 있다.

동사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1.1%로 대부분 임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다만, 동사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약 12.5%로 고용노동부 자료(2021.02)에 따른 동 산업(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인 28.8%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약 45.3%로 산업평균인 72.4%를 하회하고, 동사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비율도 90.6%로 산업평균인 91.4%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동사 근로자의 정규직 수 및 근속연수

성별	직원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76	1	77	6.3	9.3	75	69
여	11	-	11	5.7	8.5	34	50
합계	87	1	88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2021.02),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 부문에서 동사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비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가 독립된 위치에서 회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사는 최대주주인 서울전자통신의 지분율이 16.8%이며, 동사는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2022년 3월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2022년 제 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일부 주주친화활동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	회계 전문성	○	최대주주 지분율	16.8
사내/사외/기타비상무	2/1/0	특수관계인	-	소액주주 지분율	65.17
사외이사 재직기간	3년 미만	내부통제 제도	○	3년 이내 배당	-
내부위원회	-	감사 지원조직	○	의결권 지원제도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 동향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IT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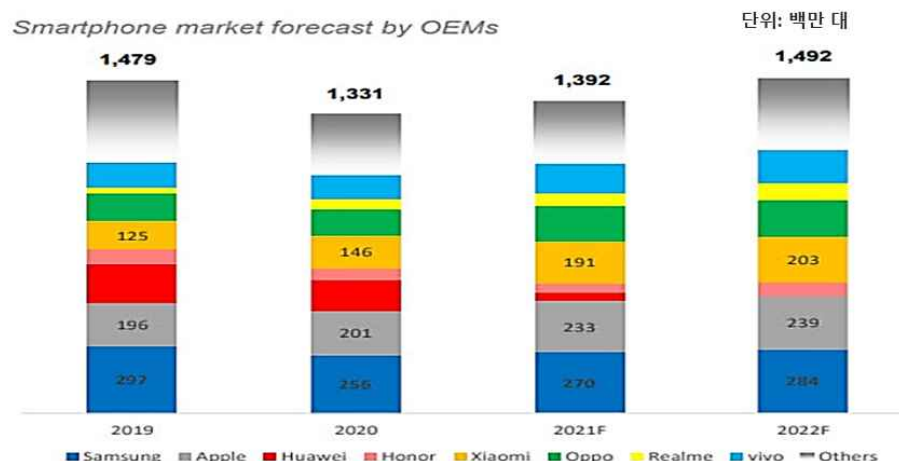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2년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스마트워치 시장은 구글과 메타의 신규 합세로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스마트폰의 카메라 출하량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주춤했던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2년 7.2%의 성장률로 회복세 전망

2021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초 예상했던 14억 8,000만 대보다 다소 낮은 13억 9,200만 대로 기록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기 침체와 IT기기의 수요 둔화, 반도체 공급난 심화 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의하면, 2022년에는 수요와 경기, 반도체 공급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보다 7.2% 증가한 14억 9,200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기별 전망치로 보면, 1분기 3억 3,800만 대, 2분기 3억 5,100만 대, 3분기 3억 8,600만 대, 4분기 4억 1,700만 대이며, 특히 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은 2022년 인도에서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스마트폰의 54%에 달하는 총 8억 700만 대 정도 출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사별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가 각각 소폭 증가하여 1위, 2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시리즈의 성공적 출시로 2021년 매출액과 판매량 모두 증가했고, 유럽, 미국, 한국 등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하는 팬트업 효과로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갤럭시 A 시리즈 역시 성공적으로 중저가대 시장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폴더블 제품은 현재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으나,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들도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시장 내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그림 3] 2022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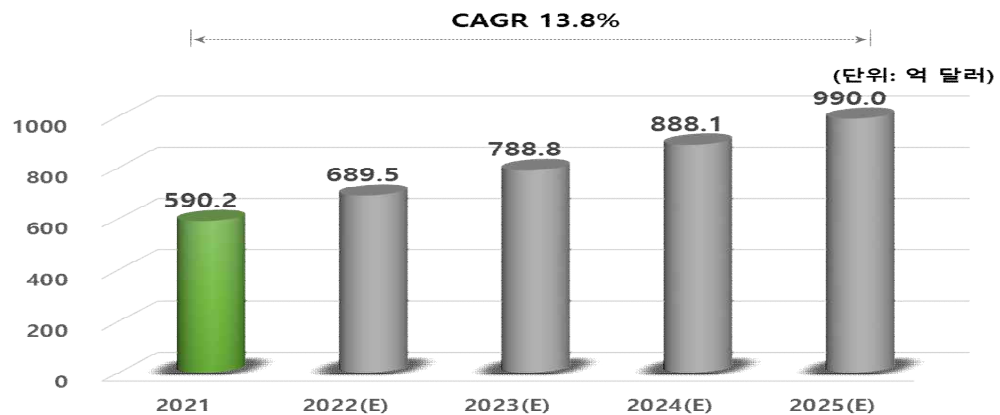
*출처: CounterpointResearch(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스마트워치 시장은 구글과 메타의 합세로 더욱 가파른 성장 예상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손목밴드 기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심지어 스마트 의류까지 개발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실제로도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착용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역시 크게 확산 중이다.

웨어러블 시장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워치는 시장 확산세가 뚜렷하다.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마켓에 의하면,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은 2021년 590억 2,000만 달러(한화 약 69조 7,000억원)에서 2025년 990억 달러(약 116조 9,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전망



*출처: Researchandmarket(2021), NICE디앤비 재구성

이는 스마트워치가 가져다주는 일상의 편리함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있고, 기술적으로 미성숙했던 배터리 기술, 디바이스의 저전력 설계 기술들이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구글과 메타(전 페이스북)가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출시 일정까지 언급되면서 시장 성장을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구글의 첫 스마트워치 브랜드 ‘픽셀워치’는 2022년 상반기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일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둥근 원형 디스플레이와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되었고, 자체 운영체제인 ‘웨어OS’를 탑재하여 구글만의 강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이 공개한 스마트워치는 시계 전면부에 탑재된 카메라가 특징인데, 메타의 스마트워치는 언제든지 손목을 들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어 최근 MZ세대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워치 시장은 기존에도 강자인 애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구글, 메타 등의 이러한 발표 및 합세를 통해 더 가파른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 성장률은 다소 둔화 되었으나 여전히 증가 추세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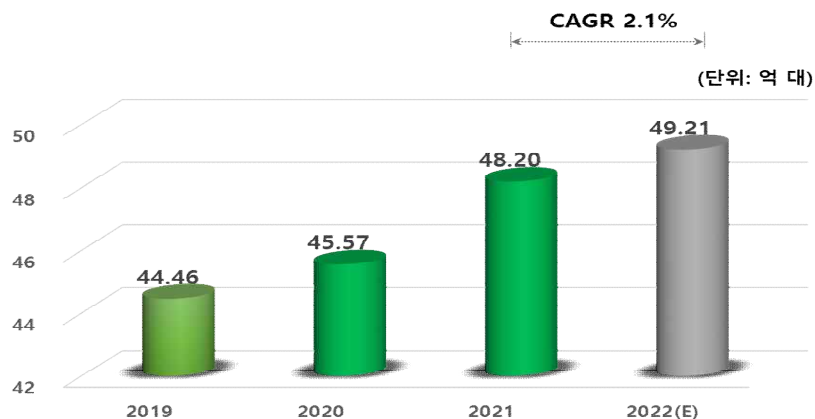
스마트폰에는 두 개 이상의 카메라를 하나로 합친 멀티카메라가 장착된다. 멀티카메라는 메인 카메라와 광각, 망원 카메라, 근접카메라, TOF 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 모듈이 한 세트에 구

성된 카메라로, 이 중 광각 카메라 모듈은 화각이 넓고, 고화소 카메라 모듈은 찍은 사진을 크게 확대해도 품질 저하 없이 뚜렷하게 이미지를 재생할 수 있어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은 2019년 27%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가파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2022년에는 카메라 모듈 출하 증가율이 약 2.1%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카메라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쿼드 카메라 대신 트리플 카메라 탑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트리플 카메라가 선호되는 요인으로는 쿼드 카메라의 제한적인 화질 향상, 전력 관리 반도체(PMIC),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등 부품 가격 인상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 의하면, 2022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출하량은 약 49억 2,100만대로 2021년 48억 2,000만 대보다 약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과 2020년 출하량이 각각 44억 4,600만 대, 45억 5,700만 대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다소 성장률이 둔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그림 5] 전 세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출하량 전망



*출처: TrendForce(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업체 현황 및 시장점유율 분석

[동운아나텍] 동운아나텍은 휴대폰, 태블릿, 기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2006년 설립되어 2015년 코스닥 상장하였다. 동운아나텍은 시스템 반도체 중 스마트폰 카메라용 AF Driver IC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F Driver IC 이외 Haptice Driver IC, ToF Diver IC 등을 통해서도 사업을 영위 중이다. 동운아나텍은 삼성 갤럭시 S21에는 전면 카메라용 C/L(Closed Loop) AF를 공급했으나, 갤럭시 S22의 경우 전면과 후면 카메라를 모두 공급하고 있어 2022년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1년 매출액은 총 898억 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7억 원과 85억 원을 기록하였다.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는 자체 설계자산(IP)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생산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03년 설립되어 2015년 코스닥 상장하였다. 칩스앤미디어의 IP는 자동차, TV, 셋톱박스, 카메라, 로봇 등 영상을 이용하는 디바이스에 주로 활용되며, 최근에는



사업영역을 비디오 코덱, 이미지처리장치(ISP)에서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으로 확대하고 있다. 칩스앤미디어의 매출처는 2021년 IT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 등 반도체 기성품을 사용하던 기업들이 자체 칩 생산 수요를 증가시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 매출액은 총 232억 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3억 원과 77억 원을 기록하였다.

Ⅲ. 기술분석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과 카메라 모듈의 핵심 IC 제조 기술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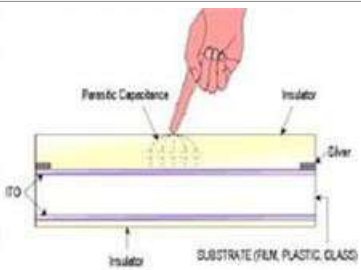
동사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터치스크린 동작 제어에 최적화된 터치 IC 설계 기술과 스마트폰 카메라의 선명한 화질을 위한 AF Driver IC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었다.

■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스크린 핵심소자인 동사의 터치 IC

터치스크린은 저항막 방식, 광학 방식, 정전용량 방식, 초음파 방식, 압력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과거 ATM, 키오스크 등 산업용 제품에 한정되었던 터치스크린은 현재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저항막 방식 터치 입력 방식에서 사용자 입력 편의성 중심의 정전용량 방식으로 전환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동사는 이러한 기술 동향에 맞추어 정전용량 방식 터치스크린 동작 제어에 최적화된 터치 IC 설계를 핵심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정전용량 방식 터치스크린은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저항막 방식과 달리 근접 센싱에 기반하고 있으며, 커버용 코팅 글라스/플라스틱 아래 패널 크기와 동일한 두 개의 교차된 투명전극 필름을 두고, 도전성 물체가 가까이 접근할 경우, 커패시턴스 양을 변형시켜 정확한 터치 좌표를 얻어내는 원리이다. 아울러, 디지털 필터링과 보간처리(interpolation) 기술을 더해 정확한 터치 좌표 획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동사의 터치 IC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터치스크린 구동 및 제어에 최적화되어있다. 또한, 터치스크린 컨트롤러로서 반응속도가 100Hz 이상의 고속 동작 멀티터치 구현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동사의 기술은 기존 저항막 방식 대비 우수한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에 특화된 정전용량 방식 터치스크린을 용이하게 구동할 수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PC에 이어 냉장고, 스마트TV와 같은 가전제품까지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표 6] 정전용량방식 터치스크린과 터치 IC

구분	세부 설명
정전용량방식 터치스크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접 센싱(proximity sensing) 방식 • 도전성 물체가 가까이 접근할 경우, 커패시턴스 양을 변형시켜 정확한 터치 좌표를 얻어내는 원리 • 디지털 필터링과 보간처리 기술로 정확성 강화
터치 IC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드러운 터치입력 가능 • 100Hz 이상의 고속 동작 멀티터치 지원(여러 접촉부위 동시인식) • 저항막에 비해 내구성 뛰어난
적용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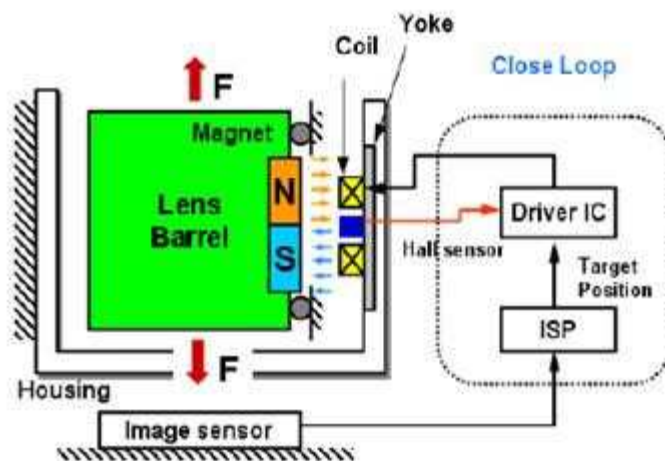
■ 스마트폰 카메라의 선명한 화질을 위한 AF Driver IC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렌즈가 고정되어 있어서 피사체의 위치에 따라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카메라 촬영 시 선명한 화질 구현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피사체 위치에 따라 렌즈를 이동시켜 항상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는 자동초점(Auto Focus)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데, 동사는 이러한 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라 AF Driver IC에 Open Loop AF 방식과 Closed Loop AF 방식의 제어기술, 광학적 손떨림 방지 기술(Optical Image Stabilizer, OIS)을 탑재하여 경쟁력을 갖추었다.

Open Loop AF 방식 제어기술이란 판 스프링을 이용한 비접촉 가이드 방식으로 ISP(Image Signal Processor)에서 피사체 영상을 분석하여 렌즈 최적의 초점 위치를 지속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의 기술을 말한다. Closed Loop 방식 제어기술은 볼 부싱(Ball bushing)을 이용한 접촉식 가이드 방식으로 ISP에서 피사체 영상을 분석하여 렌즈의 목적지 위치를 지정하면 Driver IC가 위치센서(Hall Sensor)로 렌즈의 위치를 파악하여 스스로 렌즈 최적의 초점 위치를 찾아가는 방식의 기술이다.

동사의 두 방식은 모두 효과적인 자동초점을 위한 기술이나, Open Loop 방식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주로 저가형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Closed Loop 방식은 최적의 초점 위치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으로 주로 고사양 스마트폰에 적용된다. 동사는 이와 같이 저가형 스마트폰부터 고가형 스마트폰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추세는 카메라 모듈이 점차 고화소로 이동함에 따라 신속하게 초점 위치를 맞추는 것이 필수요소로 부각되어 고가이긴 하지만 성능이 우수한 Closed Loop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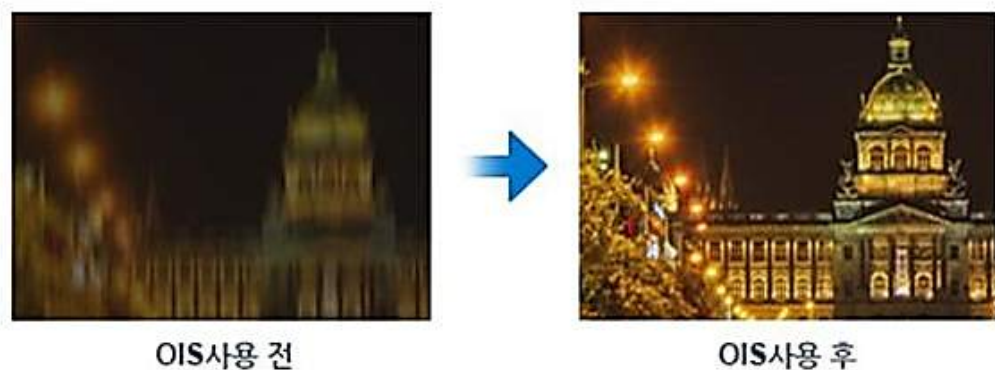
[그림 6] Closed Loop 방식의 AF Driver IC 구조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OIS는 사람의 미세한 근육계 떨림이나 셔터를 누를 때 발생하는 흔들림에도 선명한 사진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크게 렌즈 이동방식과 이미지센서 이동방식이 있는데, 동사는 렌즈 이동방식을 사용한다. 렌즈 이동방식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합한 방식으로 기기의 흔들림 방향을 자이로센서로 인식하여 그 반대 방향으로 렌즈를 이동시켜 항상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OIS가 적용된 동사의 AF Driver IC는 중국기업의 경우, 각사의 플래그십 모델을 중심으로 탑재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매스모델 중 상위제품을 중심으로 탑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화질화와 동영상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OIS가 적용된 AF Driver IC 선호도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7] 스마트폰 카메라의 OIS 사용 전후 사진 비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다양한 Haptic Motor 구동을 위한 Haptic Driver IC

햅틱 기술은 사용자가 어떤 물체를 만지면 다양한 진동 패턴을 사용자에게 피드백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정확한 동작을 했는지 인식하게 하는 기술이다. 즉, 스크린을 터치하면 모터를 구동하여 진동으로 피드백을 주어 기존 기계식 버튼의 촉감을 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 햅틱에서는 주로 ERM(Eccentric Rotating Mass)과 LRA(Linear Resonant Actuator) 모터를 사용하는데 ERM 모터는 제조 공정 및 드라이빙 기술이 간단하지만 반응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특징이 있고, LRA 모터는 반응속도는 비교적 빠르고 부드럽지만, 한 가지 주파수만 출력 가능하여 그 고유 진동 주파수를 벗어나면 진동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다양한 Haptic Motor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제조사별 고유주파수를 자동으로 찾아 최대 진동을 확보할 수 있는 오토 튜닝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개선과 함께 수율을 증가시켰다. 또한, Haptic Motor는 기존 LRA 모터보다 진동력이 크고, 제품 높이가 축소된 BLDC 모터, Piezo 모터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어, 동사는 BLDC Haptic Driver IC, Piezo Haptic Driver IC와 같은 모델도 계획 중이며, Haptic IC는 향후 VR, AR기기까지 확대 적용이 예상된다.

■ SWOT 분석

[그림 8] SWOT 분석



IV. 재무분석

반도체 공급부족 등으로 매출실적은 정체되었으나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

2021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한 전방산업 부진으로 동사의 매출실적이 정체를 나타낸 가운데 수익성도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풍부한 단기유동성과 낮은 차입부담 등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최근 2개년은 전방산업 부진으로 인해 매출실적 정체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 펌리스 기업으로, 터치 IC(스마트폰, 웨어러블), Auto Focus Driver IC, Haptic IC, Fintech MST IC, DC-DC Power IC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제품군별 매출 구성은 터치 IC가 71.2%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제품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터치IC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서 국내 제조사 삼성전자(갤럭시스마트폰, 갤럭시워치), 중국 제조사 BBK(OPPO/VIVO), 샤오미 등 세계 스마트폰 주요 제조사에 IC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 구글이 인수한 웨어러블 기업 핏빗도 매출처로 확보하였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내수 11.2%, 수출 88.8%로, 해외 제조사로의 수출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시현하고 있다.

동사는 2019년 전년 대비 18.0%의 매출액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전 세계적인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웨어러블 등) 판매 감소로 -26.5%의 매출액증가율을 기록하며 외형 감소를 나타내었다. 2021년에도 스마트기기 시장이 정체를 나타낸 가운데 미국시장 진출 등으로 일부 실적은 만회하였으나, 전년 대비 3.9% 감소한 388.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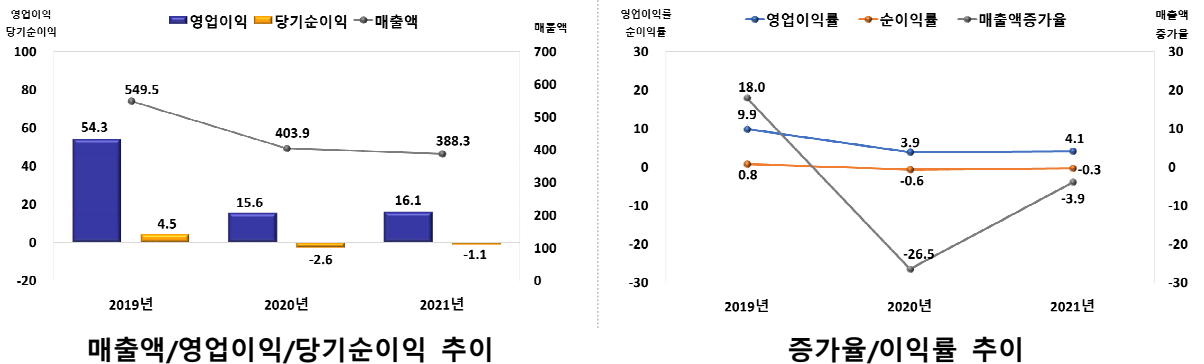
■ 2021년 영업수익성 소폭 개선되었으나, 당기순손익은 소폭의 적자 지속

2020년 매출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 부담 증가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9년 9.9%에서 2020년 3.9%로 감소하였다. 이후, 2021년에도 역시 매출원가율 감소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1%를 기록하였지만,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영업수익성을 나타내었다.

다만, 최근 3개년 개발비 중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무형자산손상차손 인식으로 영업외수지가 적자를 나타내어 매출액순이익률이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영업외비용의 영향으로 -0.3%의 매출액순이익률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당기순손익이 소폭의 적자를 지속하였다. [매출액순이익률: 2019년 0.8%, 2020년 -0.6%]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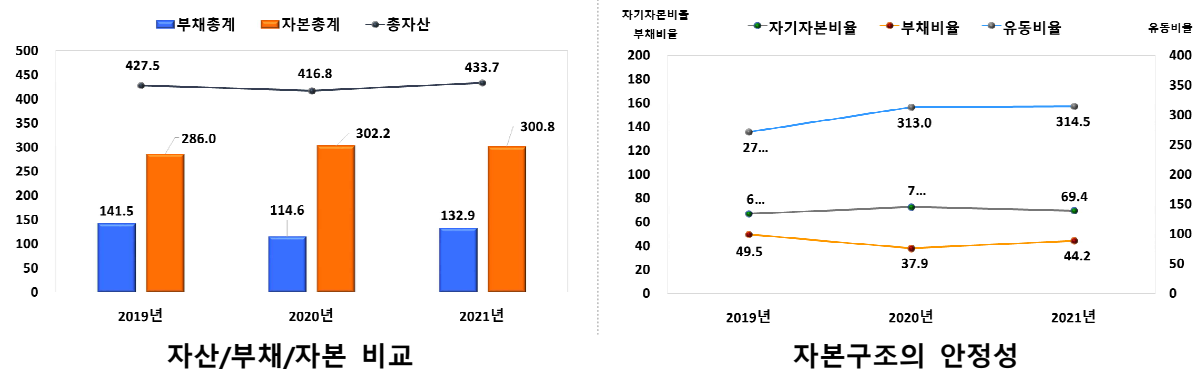
■ 자본잉여금을 기반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부채 규모를 상회하는 재무구조 유지

최근 2개년 당기순손실 시현으로 자기자본 규모는 소폭의 축소세를 나타냈지만, 양호한 규모의 자본잉여금을 바탕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부채 규모를 상회하는 재무구조를 유지하였으며, 2021년 기말 기준 부채비율 44.2%, 자기자본비율 69.4%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다소 높지 않은 수치이나 여전히 우수한 수준이다. 또한, 유동비율은 전년에 이어 300%를 상회하며 우량한 단기유동성을 나타내었고,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총자산의 47.0%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금유동성은 풍부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차입금은 전년말 대비 큰 변동이 없으며, 차입금의존도는 10% 가량으로 높지 않은 수준인 바, 전반적인 재무리스크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사 분석

동사의 경쟁업체로는 칩스앤미디어, 동운아나텍 등이 있다. 2021년 결산 기준 매출액을 비교하면 동사가 388.3억 원, 칩스앤미디어가 199.8억 원, 동운아나텍이 506.6억 원으로 동운아나텍의 매출액이 가장 큰 수준이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동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 4.1%, 칩스앤미디어 26.0%, 동운아나텍 -31.1%로 3개 업체의 영업수익성의 분포도가 분산되어 있으며, 칩스앤미디어의 수익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개별기준)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549.5	403.9	388.3
매출액증가율(%)	18.0	-26.5	-3.9
영업이익	54.3	15.6	16.1
영업이익률(%)	9.9	3.9	4.1
순이익	4.5	-2.6	-1.1
순이익률(%)	0.8	-0.6	-0.3
부채총계	141.5	114.6	132.9
자본총계	286.0	302.2	300.8
총자산	427.5	416.8	433.7
유동비율(%)	271.6	313.0	314.5
부채비율(%)	49.5	37.9	44.2
자기자본비율(%)	66.9	72.5	69.4
영업현금흐름	57.1	23.7	23.4
투자현금흐름	-19.1	19.1	-101.6
재무현금흐름	-8.5	10.2	1.7
기말 현금	83.7	130.0	53.7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전방산업 회복 및 글로벌 시장 확대로 향후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 기대

2022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전망 등 전방산업의 회복 및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터치 IC 부문에서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동사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 글로벌 기업들을 주요 매출처로 하여 2022년에도 높은 시장점유율 기대

2021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는 삼성, 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이며,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는 애플, 화웨이, 삼성전자이다.

상기 업체 중 동사는 애플을 제외한 업체 모두에게 터치 IC를 공급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부문 터치 IC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 중이다. 아울러, 구글과 메타의 첫 스마트워치가 2022년 상반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동사의 매출실적 증가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구글 자회사 핏빗에 웨어러블 터치 IC 공급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동사는 2021년 4월 구글 자회사이자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인 핏빗의 최신 트래커 모델에 웨어러블 터치 IC를 탑재하기로 하여 향후 미주향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글로벌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며, 이미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스마트기기 제조사인 중국의 샤오미 등에 웨어러블 IC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동사의 수주(핏빗 최신 트래커 모델의 웨어러블 터치 IC 탑재)는 중국 시장 뿐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됨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으로서 시장 입지를 좀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핏빗은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웨어러블 분야의 대표적인 미국기업으로 전 세계 1억 대 이상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판매하였으며, 활성 사용자만 월 2,800만 명에 이르는 기업이다. 구글은 2021년 초 21억 달러(한화 약 2조 3,200억 원)를 들여 핏빗을 인수함에 따라, 2025년 601조 원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건강관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 예상된다.

■ 인공지능(AI) 시스템온칩(SoC) 개발 계획

동사는 국내 기업·기관과 협력해 음성인식에 특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온칩(SoC)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 개발사와 협업을 통해 우수한 제품 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국내 시장 공략 후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설계 개발은 동사가 진행하며, 음성인식 인식 알고리즘은 (주)파워보이스, AI용 뉴럴 네트워크엔진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고, 해당 반도체 칩은 스마트홈, AI 스피커, 홈네트워크 패드,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임베디드 음성인식 모듈로 확장 개발될 예정이다.

동사의 이와 같은 개발 계획은 AI 스피커에 들어가는 모듈(디지털신호처리프로세서, 파워, 오디오, 기타 로직 칩 등이 조합된 모듈) 가격 인하와 사이즈 축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맞춤형 음성인식칩 생산을 통한 세계 음성인식칩 시장 진출을 기대하는 부분이다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대신증권	Not Rated	-	2021.0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4월 구글이 인수한 FiBbit 사의 웨어러블 제품에 컨트롤러 IC 제품 공급 시작, 향후 북미 고객사 향 공급 확대 기대 ■ 현재 매출 비중은 중국 고객사 60%, 삼성전자 40% 수준. 중국 고객사 향 비중 꾸준히 증가했고, 향후 북미 고객사 향 매출이 더해지면 글로벌 웨어러블 IC 시장에서 비중 확대 예상 ■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쇼티지 이슈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생산 비용 상승이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유안타증권	Not Rated	-	2021. 0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IDC 2019년 기준 추정)은 스마트워치 45.6%, 손목밴드 24.7% 수준. 특히 중국향 매출기여도는 2020년 41.0%까지 상승 ■ 2021년 4월 미국 유명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인 핏빗(FitBit)사의 최신 모델이자사 웨어러블 IC제품이 탑재된다고 밝혀 향후 미국향 매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 중장기적으로 AF드라이버, 핀테크 MST IC, 햅틱 IC 등 신성장 동력부문도 주목할 사항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1]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2년 3월 27일)